



○ 소 ○

산지 값 약세 전망



연말 송년회 특수에 따른 쇠고기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나 산지값 강세 기대심리의 작용으로 인한 산지소 출하물량이 급격히 증가하며 2007년 말 현재 소 값은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출하물량 증가는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산지소 값이 연말을 기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농가들의 불안심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농가들의 불안심리 배경에는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크게 자리잡고 있다. 소 값 향방에 변수가 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 문제는 해를 넘길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2008년 초부터 수면위로 떠올라 쇠고기 소비 최대 시점인 2월초 전부터 본격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소 값은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하면 출하물량 증가로 연결, 본격하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농경연에 따르면 비저세우 물량부족으로 수소가격은 상승, 설(2월 초)까지 소비 증가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사육불안 심리로 수소를 제외한 산지가격은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미국산 소갈비 수입재개시 두 당 20~30만원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농경연은 내다봤다. 2007년 12월~2008년 2월 한우(600kg) 암소 산지가격 460~480만원대, 수소 490~510만원대, 수송아지 가격 200~210만원대 각각 전망하였다.

○ 돼지 ○

당분간 약보합세

두 당 2천600원~2천800원대(비육돈 기준)를 넘나들던 돼지 지육가격은 2007년 말 현재 소비 특수 영향으로 2천900원에서 3천원선에 형성되고 있다. 삼겹살·복살을 비롯해 후지·등심까지 전반적으로 원할한 소비를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판매가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다. 아울러 육가공업체들도 연말 증가하는 수요에도 불구하고 재고직체에 따른 부담감으로 작업량을 늘리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며, 이 같은 상황은 2008년 초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전통적으로 돼지 지육가격이 연말 강보합세 이후 1~2월 내리막길을 보이다 3월부터 상승세로 돌아서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 2천900원대의 돈지육 가격 추이는 2008년 초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연초부터 본격 거론되며 농가들의 불안심리를 부추길 경우, 사료값 급등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농가들이 조기출하를 서두를 수도 있어, 연초 돈지육 가격 향방은 가늠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만약 미국산 쇠고기 문제와 소모성질병으로 돼지 사육두수 감소세로 돌아설 경우, 2008년 1월말 돈지육 가격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두 당 3천200~3천300원 수준에서 형성될 전망이다.

(일간 미트뉴스 제공)

